

단편소설

얼굴을 보다

차노휘

그녀는 고인의 얼굴을 덮고 있는 한지를 걷어냈다. 50대의 나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피부와 긴 속눈썹, 낮은 콧등과 볼거진 광대뼈, 검보랏빛 입술이 드러났다. 그녀가 분향실에서 언뜻 본 영정사진 속 얼굴은 삶에 고된 흔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작업대 위에 누워있는 고인의 얼굴은 그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생각했다. 죽음은 젊고 고왔던 모습으로도 찾아오는 것일까.

그녀는 사타구니에 힘을 주고 작업대 가까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화장품가방을 여는 손가락 끝이 떨렸다. 미리 화장수를 묻혀놓았던 솜을 가방에서 꺼내 얼굴을 닦아나갔다. 체온이 없는 피부라 물기가 다 닦일 때까지 마른 솜으로 반복해서 닦았다. 손끝에 고인의 피부가 닿을 때마다 섬뜩한 기운이 뻗쳐 어깨가 질로 움푹거렸다. 시간이 없었다. 가능하면 5분 안에 화장을 끝내야 했다.

블랙 딥 펜슬, 파운데이션 23호, 와인 빛

“스물네살 아가씨가 자살했어요”

“이름이...” “5호 김선희”

입관실 문은 열려 있었다

립스틱 150호... 그녀는 생각했던 화장품 목록보다 더 많은 파운데이션 21호를 얼굴에 펴 바르고 분침을 두드렸다. 유족들은 나이 든 고인의 경우 생전의 온화한 얼굴로 되살려놓기를 원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 일을 하다보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지금과 같은 경우다. 그녀는 눈썹에 묻은 분가루를 화장지로 닦아내고 블랙 펜슬로 눈썹을 그렸다. 마스카라를 칠하고 필이 들어간 분홍 빛 아이섀도로 눈두덩을 덧칠했다. 와인 빛 립스틱과 볼 터치로 마무리하자 얼굴이 환하게 살아났다.

그녀가 막 장례식장 현관을 나서려고 할 때 직원인 C가 그녀를 부르면서 뛰어왔다. 그를 향해서 돌아서서 C가 이마를 잔뜩 찡그리면서 말했다.

“오늘 또 진상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얼굴 좀 확인해주시고 화장해주시면 안될까요? 오늘 바로 작업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진상”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사체를 일컫는 속어로 ‘바로작업을 한다’는 말은 주로 삼일장을 치르는 장례절차를 무시하고 당일예 염습과 입관, 그리고 발인을 한다는 뜻이다. 대개 자살한 사체일 경우, 상주들이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녀는 망설였다. 일주일 째 연락이 끊긴 K를 찾아 나설 참이었다. 펜스레 휴대폰 폴더를 열어 11시10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C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는 어떤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듯 그녀의 어깨 너머, 도로를 보고 있었다. 자동차들이 달리면서 내뿜는 소음과 주차장에서 뛰어노는 어린 상주들의 고통소리가 아까부터 그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스물네 살밖에 되지 않은 아가씨인데, 자살을 했어요. 제가 직접 사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그 집안 또한 너무 심한해서...”

C가 그녀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언뜻 동정의 빛이 보였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심한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녀는 입관실 입구가 있는 일층 로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좀 전에 입관을 관람했던 상주들이 까마귀 떼처럼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름이...”
“5호, 김선희.”

입관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화장품 가방을 권손아귀에 힘을 주고 목을 뺏뺏이 쳐든 채 안으로 들어갔다. 날이 설 정도로 반듯하게 다린 검정 마이와 바지, 이마에 머리카락 한 줄을 흘러내리지 않게 말끔히 묶은 긴 머리. 꼭 다문 입

술. 그녀는 고인을 위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옷차림새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그녀가 걸을 때마다 대리석 바닥을 부딪치면서 내는 불규칙한 소리가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비해 10센티미터가 짧았다. 짧은 다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왼쪽 구두 굽에 부족한 다리 길이만큼 덧댔지만 걸을 때면 어김없이 왼쪽 다리가 기울어져 재빨리 앞으로 내디디면서 끌어야 했다. 그녀는 반 박자 느린 자신의 한쪽다리가 제자리에 서는 동안 입관실 안을 둘러보면서 씬 호흡을 했다.

지하 일층에 위치한 입관실은 언뜻 보면 호텔주방으로 착각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내벽은 원목이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다. 정면에는 3단 원목 사체냉장고가 있었고 그 앞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오른쪽 벽에도 원목으로 된 수납장이 있었고 수납장 안에는 수의에서부터 자갈한 소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왼쪽 깊숙한 곳에는 승강기가, 승강기 옆에는 관을 보

관해 놓은 참고 문이 나 있었다. 참고 문 위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쪽에서도 내부를 훑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구석진 곳에는 싱크대처럼 생긴 수세식 웅구가 있었다.

그녀는 사체냉장고 앞에 서서 머뭇거렸다. 다른 날과 달리 혼자 고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로비에 올라가서 커피한잔 마시고 내려오는 것도 귀찮았다.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좀 더 기다리면 C가 올 거 같았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울 때쯤, C가 종이 커피 두 잔을 양손에 들고 내려왔다. 커피 한잔을 그녀에게 건네고는 그 역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눈을 반쯤 덮은 C의 긴속눈썹이 연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까부터 궁궐했던 것을 물었다.

“어떻게 자살했나요?”
“목을 찢었어요. 그것도 운동화 끈으로 베란 다 건조대에서...”

“...”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고인의 얼굴에 화장할 생각을 했어요?”

C는 평소처럼 낮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린 그녀를 놀리는 말투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고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처음 그녀는, 자신이 의식하지 않은 내부의 두려움이 불쑥 튀어나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관실에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운 것은 없다. 그 무서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녀의 감정은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진 듯 했고 어떤 충격에도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거 같았다. 그녀는 고인의 얼굴을 보면 불수록 더 대답해졌다. C에게 사고가 난 고인을 모셔올 경우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이 고인의 얼굴을 만지기 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굳어지는 원초적인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그녀는 이상하게 끔찍한 얼굴을 보면 불수록 더욱더 흥분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보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다. 그 욕구는 두려움이 아닌 일종의 설렘이었다. 죽음에 대해서, 아니 오래전에 그녀의 내부에 잠재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배가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특히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지금처럼 집을 나간 K의 행방이 궁금해질 때면 꼭꼭 눌러놓았던 무서움들이 알 수 없는 감정들과 섞여 그녀의 평상심을 위협했다. C가 그녀를 놀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날과 달리 비위가 상당히 약해졌고 약간의 충격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

C가 칠성판을 빼자 하얀 사체보에 덮인 김선희가 길게 빠졌다.

그녀는 훑쳐보듯 김선희의 얼굴에 시선을 던졌다. 한지 위로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얼굴형은 작았다. 하관이 가파르고 콧날이 오뎅했다. 얼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한지를 걷어야 했다. 그녀가 한지 위로 손을 뻗자마자 가슴이 펌프질을 했다. 고작해야 2초 안팎이었다. 막상 걷어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얼굴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머리털이 설 정도로 그녀는 긴장했다.

한지를 걷어내자 C가 먼저 욕지거리를 내뿜었다.

“제기랄! 뭐야? 좀 전에도 얼굴을 바로 잡아놓았는데, 다시 비틀어진 이유가 뭐야!”

C는 각진 턱과 거의 움직임이 없는 긴 속눈썹, 감정이 없는 말투와 표정을 이곳의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적당히 버무릴 줄 알았다. 10년 경력이라고 했다. C가 유일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은 입술이었다. 뭔가 못마땅할 때면 입술을 씹룩거렸다. 하지만 오늘처럼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C는 그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껄었다.

“탁, 까놓고 둔이 안돼요. 나이도 고작 스물네 살에 자살이라니. 화장터에 갈 게 뻔하고 산 관에 싣 수의를 걸칠 거예요. 입관도 가족이 보지 않을거구요. 더군다나 얼굴까지 이렇게 일그러졌으니, 직원들까지 고생시키는 셈이죠.”

C가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럴 때는 그녀가 여자라는 것이,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다는 게 다행이다 싶었다.

언제부터가 장례식장 직원이든 상조 회사 직원이든 고인을 염할 때면 어김없이 그녀에게 화장을 맡겼다. 수당 외에 들어오는 노자 돈도 그녀에게 나눠줬다.

장례식장 직원과 달리 상조 회사 직원은 상이 터지면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살다시피 한다. 분향실에 꾸밀 화환과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입관에서 발인과 장지까지 책임을 진다. 상조회사의 ‘장례 상품’에는 수의에서부터 관, 캐딜락, 장의차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장례식장은 분향실 사용료와 음식 값만으로 매상을 올려야한다. 또한 상조회사가 제시한 상품 가격이 장례식장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싼 게 문제다. 장례용품 가격에 거품이 빠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례식장은 손해를 봐야 한다. 그녀는 사무실 안에서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투는 장면을 종종 목격했다. 이들은 이해관계에서 서로

죽음의 순간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그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에게는 배려를 했다. 그녀의 신체적 결함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듯 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태도도 한 몫했다. 슬픔도 기쁨도 나타내지 않는 무표정. 이는 것도 모른 척 할 수 있는 무관심한 태도. 주는 돈 또한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동료의식을 가지게 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곧 어느 쪽 직원 이든 사심 없이 불평을 터뜨릴 수 있는 상대가 되었고 상주들의 이목을 끄는 상품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그들 누구도 그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화장을 한 연예인은 2년 동안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김이었다. 김은 약성터머에 시달려 목을 찢다. 유족들은 그녀에게 고인의 화장을 부탁했다. 매일 김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그녀가 생전의 얼굴로 되돌릴 거라고 생각한 듯했다. 처음, 그녀는 약간의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김에게 월급을 받았던 몸이지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그



그림 박태후

◇박태후 약력 ▲조선대 순수미술학과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녀의 호기심을 강하게 유발시켰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체온을 가진 피부와 체온을 잃은 피부에 화장

크업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메이크업 강사나 신부화장도 잘할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대답을, 김의 얼굴을 덮고 있던 한지를 걷어냈을 때 비로소 얻은 것 같았다.

김은 일반적으로 목을 매단 사체의 얼굴과는 달리 눈을 내리깐 채 왼쪽 입술 꼬리를 귀 쪽으로 살짝 올리고 있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미리 얼굴을 풀어준 것을 알지 못했던 그녀는 김의 표정에서 ‘조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세상을 향한 조롱, 내지 그녀를 향한 비웃음 같은 것이라고 할까. 너는 아무 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불구라서 연예인들의 화려함에 몸을 숨기려고 할 뿐이야. 너는 콤플렉스로 가득 찬 절름발이 일 뿐이야...

하지만 산사람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녀는 대답할 듯 가슴을 두어 번 두드렸다. 담배를 비벼 끈 C가 그녀를 곁눈질 했다. 그녀는 일주일 전 K가 자신에게 화를 냈던 이유가 궁금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사

세상을 향한 조롱·비웃음이었다

그녀가 가장 싫어했던 허브향을 뿌렸다.

사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의 표정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린 순간, 무서움과 안타까움보다는 오기가 솟았다. 평소 김이 가장 싫어했던 보랏빛 립스틱과 필이 들어간 연두색 아이섀도로 화장을 했다. 광대뼈 깎는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김이었는데 그녀는 광대뼈에 붉은 연지를 얹어 퍼 바라 강조해버렸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다며 싫어했던 허브 향을 깃발에 뿌렸다. 평소 같았으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녀의 뺨까지 서슴없이 때렸을 김이었지만 차갑게 누워있던 김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녀의 손길에 만족해했다. 평소와 다른 화장에 가족 중 한명이 불만을 터뜨릴 경우를 대비해 담

과를 할 수도, 더욱 냉정하게 그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었다. K가 그의 휴대폰을 그녀 옆으로 던지면서 말했다. 가, 가란 말이야.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의 험글어진 머리와 흘쭉해진 볼, 담배를 연신 피워 탈색된 입술, 트렁크 팬티 밑으로 드러나던 앙상한 허벅지와 종아리... 그 말투와 표정이 생생히 뇌리 속에 박혀 순간순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그가 화를 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기만 했던 답답함이었다.

(25면으로 계속)